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숲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만들며 힐링해요

※ 이 사례는 이 사례는 박진화 충북 의림여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의림여중에서는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림여중 Wee클래스는 '자기 이해·건강한 소통·아름다운 성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의림여중 Wee클래스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캠핑장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심쿵! 새로운 나! 숲 감성형 힐링캠프'입니다. 학생들은 고요한 숲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는 힘을 기릅니다.

나 홀로 숲 속 밤하늘 보며 내면까지 이해해요

'심쿵! 새로운 나! 숲 감성형 힐링캠프'의 대상 학생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호소하는 학생,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학생, Wee클래스 내담학생 등이지만 이외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여 명의 학생들은 숲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하필이면 '숲'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업과 교우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탁 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특히 ‘나이트워크’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나이트워크’는 오후 8시 경, 3명이 한 팀을 이뤄 숲 속 밤길을 걷는 활동이지요. 처음에는 세 명의 학생들이 함께 걷지만 조금씩 간격을 넓혀 가며 각자 흩어집니다. 그리고 도심의 조명이 전혀 없는 어두운 숲 속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은 물론 자신의 내면도 관찰합니다. 복잡한 도심 속에서는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를 통해 자신을 오롯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담당교사들은 사전답사를 하며 위험요소를 살피고 학생들에게 이동경로와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활동 중에는 학생들 사이사이에 도우미 교사를 배치했지요. 헤어졌던 세 명의 학생은 다시 한 조를 이루어 출발지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의 중요성도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 “무섭다”고 하던 학생들도 “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더군요.

도토리·나뭇가지로 그림 그리며 생명의 경이로움 배운다

‘숲 속의 작은 세상’도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경기 양평시에 위치한 숲 체험학교를 찾아, 인근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손뼉을 부딪치고, 발바닥을 맞대보고, 몸으로 사물을 표현해봤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작은 들풀과 들꽃들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돋보기까지 사용해가며 버섯을 살펴보다더군요. 학생들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버섯도 사실 살아있다. 다가올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라는 지도교사의 말을 듣고 생명의 경이로움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2일차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예술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그림을 그리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토리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보고, 흰 도화지에 자신이 표현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표현력 또한 기르게 되지요.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은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질 수 있지요. 자신을 들여다보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두를 품어주는 넓은 숲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은 정말로 “치유 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앞으로 숲처럼 더 많은 학생들을 품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군산대성중 교사동아리 ‘수업동행 동아리’ 교사 친목 활동이 ‘수업 혁신’ 이끌어낸다!



1교원 1특기 나눔을 진행 중인 ‘수업동행 동아리’ 교사들. 군산대성중 제공

전북 군산대성중에는 8명의 모든 교내 교사가 모여 만든 ‘수업동행 동아리’가 있다. 군산대성중은 과거 전교생이 4~500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그 수가 23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학교의 활력도 이전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군산대성중의 교사들은 교사가 먼저 역량을 기르고 수업을 변화시키면 학교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2년 전 수업동행 동아리를 구성했다. 수업동행 동아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1교원 1특기 나눔 △독서토론 △수업 연수 및 공개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수업동행 동아리를 이끄는 양성용 군산대성중 정보교사에게 동아리 활동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묻고 들었다.

1교원 1특기 나눔으로 친목 나누고 수업 역량 길러요!

수업동행 동아리는 수업 혁신을 통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만든 교사동아리. 교사들은 서로가 가진 특기를 동료교사와 나누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사 간의 결속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해 ‘1교원 1특기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요리 △바리스타기술 △목공기술 △비누 만들기 등 자신이 갖고 있는 특기를 다른 동료교사에게 알려주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은 동아리에서 배운 특기를 수업 재구성에 활용하거나 다른 교사의 수업, 동아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목공동아리 시간에 보조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조언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학생들을 보다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

양 교사는 “학교의 교사 수가 적다보니 교사간의 동료애가 매우 중요한데 특기 나눔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도 도움을 주니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학생과 교사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업 혁신이 불러온 학생들의 자립심 향상!

교사들은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모둠활동과 토론이 중심이 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했다. 교사의 말을 받아 적는 수업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수업의 변화에 다소 어색함을 느꼈으나 점차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과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자립심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감사캠프’를 기획하도록 했다. 감사캠프는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야영캠프. 학생들은 직접 조를 짜고 초대장을 만들어 부모님을 초대한 뒤 △떡볶이 △계란말이 △제육볶음 △두부조림 등의 음식을 손수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1부 행사와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송한 뒤 한 학기 동안 방과 후 학교에서 배운 활동을 발표하는 2부 행사를 진행했다.

감사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교사·학부모에 대한 감사함도 느꼈다. 양 교사는 “교사동아리를 통해 수업을 혁신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자존감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